

인센티브로 세수 늘리라고? 국가재정계획 지방은 없다

전남발전연구 오병기 위원 주장

앞으로 5년간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비수도권 및 비도시지역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남발전연구위원 오병기 책임연구위원은 20일 이슈브리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시사점과 전남의 대응방향’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2015~2019)”이 지방재정을 개혁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동시 개혁을 요구하고, 헌법 개정 및 지방세 과세 자주성 확보, 지역개발교부세 신설 추진 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오 책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또 사회기반시설(SOC) 및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제도를 지역의견 반영 및 외부 전문가 참여, 지역균형발전 비중 상향 조정, 기준 구제와 등의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등의 여건변화를 고려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영 전략을 확정했다. 이 전략에는

**비수도권·비도시 배려 미흡
지방재정 운용 어려움 가중
교부세 법정교부율 올려야
교육교부금 학생수로 배분
농어촌지역 교육 붕괴 우려**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복지재정 효율화, 정부 R&D 혁신, SOC 투자재원 다양화 및 투자 효율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등 10대 재정개혁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정운영 전략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수직적 관계로 설정하고 지방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돼 오히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것이 오 책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지자체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은 문제가 있으며, 마이너스 효과가 우려되는 인센티브 방식이 아니라 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 등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또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교육교부금 교부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고 교육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농어촌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비도시권 농어촌교육은 붕괴될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시한 사회간접자본 시설(SOC) 투자재원의 다양화 방안도 경제성 논란 내세우면서 SOC가 충분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향후 대형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오 책임연구위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동시에 재정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해 지자체의 과세 자주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조정제도로서 지역개발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SOC나 대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로 지역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조정이나 일괄 예타 및 예타면제 사업 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가 20일 국회에서 제35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기 전 인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했다. 일부 참가자들의 항의와 물세례를 받고 행사 도중 철수했다. /연합뉴스

“물세례 죄송”...5·18단체, 김무성 대표에 사과

◆ “미안해 할 필요 없어”...“임을 위한” 기념곡 지정도 요청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 전야제에 참석했다가 물세례를 맞고 자리를 떠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5·18단체가 사과했다.

김정길 5·18 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 상임위원장 등 5·18 관련 단체 대표들은 20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을 방문, 김 대표에게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대접을 제대로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가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불러줘서 감사하다”고도 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전혀 미안해 하실 필요 없다”고 말한 뒤 “광주의 아픔을 함께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그런 일이 발생해 마음이 아프다. 전남방직의 아들로써 앞으로도 동서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은 두 사람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서 만들어

진 아주 좋은 노래로 북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5·18 관계자 측은 이에 “기념곡을 지정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니 통과해 주길 바란다”며 “기념곡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기념식에는 제정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18단체 측에서는 김 위원장 외에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정춘식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회장, 차명석 5·18 기념재단 이사가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美기밀문서 5·18기간 북한군 잠입·활동 내용 없어”

‘80년 광주’ 추적 티모시 스콧 사료 광주 간담회

“5·18 기간 중 북한군이 한국에서 활동하거나 잠입을 계획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체로키’(Cherokee)문서를 통해 80년 당시 광주의 진실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밝혀내야 할 역사적 내용이 산적해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80년 당시 광주 상황을 추적해온 언론인 티모시 스콧 사료(Timothy Scott Shorrock)은 20일 광주시 5·18 기념문화재단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체로키 문서를 설명하며 미국이 80년 한국의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사료는 5·18 기간 중 북한군 600여명이 광주에 잠입, 폭동을 조종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미 대통령과 행

정부 수반들이 보고받은 내용과 회의록이 담긴 체로키 문서에는 당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체로키’ 문서는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후 당시 미국이 한국 상황을 주시하고자 극소수 고위관료들로 구성된 팀을 가동해 서울 주재 미국대사관 등과 교신하며 회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미 국무부가 보유한 기밀자료 중 80년 광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해 1980년까지 관련 문서 20박스를 확보했지만 최초로 발표를 지시한 인물이나 사망자 숫자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고 전했다.

5·18을 국내외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21일 광주시로부터 ‘광주 명예시민증’을 받는 그는 그동안 미국연방공무원노



조연환 정책분석관이자 내셔널 시진 미국국가안보정책 평가고자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특히 80년 광주민중항쟁 때 미국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고, 저널 오프 커머시지 기자로 활동하던 1996년 정보공개법을 통해 미국무성이 비밀파일로 보관중인 5·18 자료의 공개를 이끌어냈다. 그는 공개파일을 분석한 뒤 5·18민중항쟁 10여일을 재구성한 ‘Kwangju Diary : The View From Washington’이란 제목의 기고를 언론에 배포해 5·18의 진실을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냈다.

/글·사진=양세열기자zhot@



김은영의 '그림 생각'

(114) 이중섭

“광복동에서 만난 이중섭은/머리에 바다를 이고 있었다/~/바다가 잘 보이는 창가에 앉아/진한 어둠이 깔린 바다를/그는 한 뼘 한 뼘 지우고 있었다/동경에서 아내의 오지 않는다고”(김춘수 작 ‘내가 만난 이중섭’ 중에서)

그 동안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 임에도 참 무심했던 것 같다. 올해 처음으로, 광주국제영화제(5월14일~18일)에 관심을 갖고 레드 카펫 행사와 개막식에 참석하고, 110편의 상영영화 가운데 세 편을 관람했다. 일본의 사카이 아츠코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이중섭의 아내’는 감독의 일생처럼 ‘대단한 사랑에 전율’하게 해서 여운이 오래오래 남는다.

국민화가 이중섭(1916~1956)은 그간 평전도 나왔고 몇 차례 전람회와 서귀포 미술관과 기념관 등을 통해 널리

화폭 한가득 가슴 절절한 가족애



이중섭 작 '길 떠나는 가족'

알려진 편이지만 그의 아내 아마모토 마사코(1921~)는 화가의 애절한 편지 속 인물로 실재감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영화에서 93세 화가의 아내는 미술대학에서 화가를 만났던 순간과 한국에서의 결혼, 6·25전쟁 중이던 1952년 피란 생활을 하던 가족이 경제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화가를 남겨두고 동경으로 떠나야했던 사연을 담담하게 회상했다.

홀로 남겨진 화가는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 절망과 고통과 애련의 마디마디는 화폭에 옮겨졌다.

작품 ‘길 떠나는 가족’(1954년 작)은 화가가 가족을 소담구지에 태워 평화와 행복의 남쪽나라로 떠나는 광경을 그린 것이다. 헤어져있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삽화로 그렸던 것을 캔버스에 옮긴 것이다. 그림의 테두리는 젊은 시절 화가가 영향을 받았던 조르주 루오(1871~1958)가 즐겨 쓰던 기법을 응용한 것으로 가족을 그림 때 자주 애용하기도 했다. 화가는 서울에서 개인전이 성공하면 곧 가족을 만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역사상에 나타난 애정의 전부를 합치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거요.” 동경에서 영영 오지 않는 아내를 향한 화가의 고백에, 그 사랑에 눈물이 났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의료광고심의의필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롭’ 노인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운영동 방면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필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